

보세인식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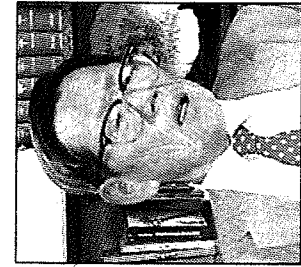
징용한인 소송

<1면서 계속>

Los Angeles Edition

<총 124면 · 가판 50¢> Friday, September 10, 1999

징용한인 잇달아 일본회사 제소



최재식씨

일제 때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한인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최재식(76)씨는 일본철강·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7일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제기했는데 역시 징용지였던 한인 김용환(76)·원점복(81)씨도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한인이 미국 법정에 일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신대·강제징용 등 한국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던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워싱턴주 레이크 우드의 한인 민권변호사 윤영일씨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해 접수시킨 소송을 통해 『20세때 보수와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일본군 관계자의 말에 속아 부역에 나섰다』가 처음에는 규슈의 제철소, 나중에는 히로시마와 아카야마의 터널공사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심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

최씨는 강제노동을 시킨 일본회사를 소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워싱턴주에 유학하고 있는 일본인 민권변호사 에츠로 도츠카로부터 이같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일본철강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한우성기자>

미법원에 미쓰비시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윤변호사는 『일인당 최소 7만 5,000달러는 배상을 받아야 하며 김용환씨와 원점복씨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전쟁포로가 된 후 강제노동을 했던 미군들이 최근 일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것으로 2차대전 때 일본에 의해 강제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미쯔이나 일본철강 등 일본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만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행식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등 LA의 한인 변호사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강제노동이나 정신대 등 일제치하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한인들이 소송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자 할 경우 이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9/10/99 (Fri)

한우성